二十八日創立紀念說質養

米인産の課愛覧日 大山菜日長丸會本 豆探技本並에と에

The Koren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Nov. 11th, 1925.

Do the duty that lies nearest thee, which thou knowest to be a duty! The second duty will already become clearer. ----Carlyle. THE QUEER GLADIATOR. from Fairy Tales of Many Countries.

In the ancient Kingdom of Korea there was a monarch, who was very fond of witnessing the performances of acrobats, wrestlers, gladiators, and other prize-fighters. He kept a great many of these men, paying them large sums of money, and training them from time to time under his own personal care. Some, who were considered the strongest and the cleverest, belonged to what was called the First Brigade. Others, slightly inferior to them in strength and skill, were counted men of the Second. All other men, who had the ambition to perform, but had neither the physical energy nor the training required for it, came under the Third; and the King gave them a pittance from time to time, rewarding thereby, as he said, their inclination to distinguish themselves rather than their intrinsic merit in that respect. His Majesty was also fond of such men as

made him laugh constantly "He that makes me laugh," sasd the King, "shall have a high reward, however insignificant his pains may be." Hence, all the wits and wags, humouris s and harlequins, mimics and motley fools, and a great many others of that populous brotherhood known as the laughing and the larghter-making tribe, congregated at the Court of his Majesty, and often drove him to the necessity of holding his ribs very tightly. Of these, there was one who was as remarkable for his madcap tricks as he was

small and ugly in size. The King called him Caterpillar, because, as his Majesty observed, he spun out the threads of his wit and humour even as that worm spun out threads of silk in one of its progressive

妙 並 劍 客 (一)

護力が提出がある。

O

新氏コ誠心勢力斗會 來十二日에 來十二日에

1日中 中會創立

大田配達組合
忠南大田のミナー個의各新聞支
局三十餘名의配漢夫가잇스나親
局三十餘名의配漢夫가잇스나親
財革案及諮般準備置中省を当盟と
別の大田の有心三人の發起呈規
しからとは一個の各新聞支
の大田の有心三人の發起呈規
しからとは、
のいからとは、
のいからは、
の

副業貯蓄組合
場響郡九龍面太平里のと数年前
場響郡九龍面太平里のと数年前
動質足労養民勢濟外公益事業の
を貢献のひごむの日本自然的
の上記が東京の
の本組合の分と貯蓄知ら当組織の
の上記が東京の
を受けるの分と貯蓄の
のと記述を
のののでは、
ののでは、
ののでは

全北記者團 全北記者團 全北記者團列分三去八日午 本國事紛所可分至州、群山、 本國事紛所可分至州、群山、 市場大回月例會暑開催司马 方狀况報告外其他諸般事項

第四平 申込場所 競技種目 登加團體 期日所時 人以内) 人 府 麗 Ξ 季秋 4 亡 前 同日見 堪 畤 亚日

局支三鲜朝、亚東、代時で

各에에八部會會日

英陽寧海間、大津の不過可里中交通の不便を大津の不過可里中交通の不便を大津の不過可里中交通の不便を一大津の不過可里中交通の不便を一大津の不過可里中交通の不便を上利害關係가頗多計らり出入口完全部を期成臺灣佛社中一方。一方可與察計可一十一月一日中間,以上一方面。至二一道。
「中華の一方面。」
「中華の一方の一方面。」
「中華の一方の一方面。」
「中華の一方の一方面。」
「中華の一方の一方面。」
「中華の一方の一方面。」
「中華の一方面。」
「中華の一方の一方面。」
「中華の一方の一方面。」
「中華の一方の一方面。」
「中華の一方面。」
「中華の一方面。
「中華の一方面。」
「中華の一方面。
「中華の一方面。
「中華の一方面。
「中華の一方面。
「中華の一方面。
「中華の

申申參

所限金

支外

「魔州」、慶州郡縣の分と陽西百四十餘斗落の公園金建設四百四十餘斗落の公園金建設フ高から七千圓金興計立所贈る率昇鳳章에게買受計が七十四、民門中の分と踏起反抗也下立路局の分に個人所有呈吐台の電局の分に個人所有呈吐台の

赤灰白 数量量数

3 徳川郡沙屯市 以東京のココ まりまた。

電気送行口同會幹部一同の 学館の初忙中のは日本 学館ののでは、一都一個 が開題が が開題が が開題が が開いるでは、一部一個 ででは、一部一個 できたい、一部一個 できたい、一部一の できたい、一の できたい でき

间島是作品、近年和有의大型的大體某產出強想高之左對外大體某產出強想高之左對,

職計立同四時の散會計失다 三回 中の三巡講の19号月下旬以内三宮 中の三巡講の19号月下旬以内三宮 中の三巡講の19号月下旬以内三宮 地名支分局の通知計の構造可立、、留家 地名支分局の通知計の発望地の 型開催計写但來十四日內三宮 型開催計写但來十四日內三宮 型開催計写但來十四日內三宮 本團執行委員の17一任司三計 中間式含支掛29(叶)其他詳細 一個式含支掛29(叶)其他詳細 一個式含支掛29(叶)其他詳細 一個式含支掛29(叶)其他詳細 一個式含支掛29(叶)其他詳細

峴驛倉庫

에

不車券의盗難

級)추현명(框觀驛)이사 이 아이라 아이라 나라(인권)

甘の心不八 間平かのいの

記者大會

보지국에서 개최하고 제반준비 이 인의 시간을질덩하였으며 대 회일자는 십일월이십일로 당하였으며 마願城)이로하기로하였으며 대 전기자격은 조선문신문과 전기구의 한 전기 전기에 친구일까지 한동동아일 대체회장소는 한후동양이라이 대 전기자격은 조선문신문과 전기 과 자이한한다하며 참기로하였는데 대 참기로인 조선 문신문과 전기 과 대한다다며 집구일까지 한동동아지 대한다다며 참기를바란다더라 (한동)

물리며 릭심됐다. 보고말대답흥승겹게한다 "누가아나 그런데 여보게바군

커빈날 그녀자의집에서 국과한 달인 되용(설깃인데 신공장이 라는위인을 맞나보일이었나』

의자용 나올모양이라면 다

一

지못하고 고향에 도라와서 지못하고 고향에 도라와서 지못하고 고향에 도라와서 지못하고 고향에 도라와서 지못하고 고향에 도라와서

의 소자권 의 학한 사유에게 주었다그램의 로 일반조작인은 물론기오사회 에서도 그쳤던는 옷을 쳤던으로 다 의약평이야 멋지봇으로 다시의 문학한지 함맛나 그당시의일반 에서대구(大郎)에가서 있스며 이 리바면에 뜻들무고 의미있는 지 하였다그는일조

그는 세상병원을 알지못하였는 지원교부모의 명정이든지 살던 원)가일이나자 악디주와인회(小作人 용)가일이나자 악디주와인치(小作人 용)가는 보한수단으로넘어되 역다 그렇에 고청단인가를마음 소유토디의

이항인이 例다른바가 잇쳤다그 이소분이 계상대원화되며 약다의 미리속에는 파기의 일측생각 주간 소작되들은 대장실험하여 하고자리되를 옛당한 것이와에 군에게되하여 하길보하고 위험

최악의 세상이다 현제도난참으로 로볼입의한것이다니하는 것집을 주시집이만도라왔다 오는 즉시로 친구신형정단회에 입혀 들려 중하였습이로 통회 위원회 기원회 하는 발생이로 

의 이 있고 생물은바 의식이 있는지 라고들의말하다시 기우려질리 기업다 그리자하나 의방에서를리 가입하여 비난기비등한 반면에의 회사에서는 근의 바에서는 근의 지며 소를잡고 압월을가리하기 하다가 된하기를 또속하하지나 이 사람들이 무지 보장하기를 바다하게 되하기를 또속하하지나 경우나 역하간그의행동을 올라 도 사랑마다이야기거리가 되는 기기되었다더라(동산)

金

**演出** 洪 趙 渝 演題 國民生活斗基營의權力

전하며 단배활학학열고 비스튬 이누정스며 피군의 병원당돌을 첫달고사사 비옷교하는말이

ではかけいいい コマピ

기 지 보는 집 한 기 나 한 집 한 기 나 한 집 한 기 나 한 집 한 기 나 한 집 한 기 나 한 집 한 이 먼 이 곳을 떠나 내 내 가 어느 이 먼 이 곳을 하는 된 이 아니라 그리라 등을 일본 이 아니라 그리자는 말 이 아니라 그리자는 말 인지 하는 말 이 아니라 그리라 된 모 이 아니라 한 아니라 한 이 아니라 한 아니라 한 이 아니라 한 아니라 한 이 아니라 한 아

達城の

食刀强盜

십여원을강달도주

아 가디로부러오 축하문수십동

京城府内의

戶數移動

지나간철일밤3일두시경에전복달 청군수청면산격동(灌城郡麓城 의 이용기를가진 강도두명이 드린 외쉬 집단사람을 강달하여가지고 다 라났다는데 이급보물드를 대구 다 경기서 경제만을 그리고 대활동 한다는바 범인인이즉 데포치 목하얏다는바 범인인이즉 데포치

한여흥이로 자미있게돌고 하여라(이동)

지지고 차를 달라는것을

오는이성일에 학남진본제를 동일키위하야 얼 마친에한호(成解)에서한남리자 대회(成解)에서한남리자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아. 비로소등이 업거죗(급이로 그 아. 비로소등이 업거죗(급이로 그 이 대소등실이 르키면 사이지 되어 기계署)에 키별을 하였으라 급 물접한 당시에서는 곳진 기기 등집한 당시 기기 등집한 당시 기기 등집인 (本某)라는 사이로서등리지 봉항(池寧ം)이 이로서등리지 봉항(池寧ം)이 이로서등리지 봉항(池寧ം)이 나이지사 배자이는 불에 함께 와 기기라를 품 자용하기 가택으로 보다하나 그렇은 각 하면 이로 사람이 바 대 이 기가 배자이는 불에 살다 하나 그렇은 그 가 바면이로 가 되었다. 교사하였는바 과연 현도국 사용하는 잉크가만히들어 등사에 동역구내에 있는 공 당시에 동역구내에 있는 공 당시에 동역구내에 있는 공 하나 아니나 달을가 그참고 장치하였는 승차권 (乘車 장치하였는 승차권 (乘車 장치하였는 승차권 (乘車 장치하였는 승차권 (乘車

지외이동이만타 원청부에서 묘사한바에 의하면 원월증시내호수(月數)는딸만이 보이배구십구호인데 그중 시외 로부터시내로이동(移動)된호수

郡金川面院谷里)이단만실(伊丹 萬吉)의장실(豫室)의 권남에서 유명한장실인데지난이일오윈두 시장에 장실커편의로부터 돌면 이불이나서 약백여평의 건물과 건물사원원 참구이원원기소해를당 하얏다하며 원인에대하야는 방 화라는말도잇스나면화(歷火)의 지도알수업서목하정승묘사하는 손해칠천원

性当事機的制裁量網數足以過性当事機的制裁量網數足以過性的外生活分々足三女用が社會の分生活分々足三女

一、我等。」女性解放運動可光驟 의役軍のヨネの投資の解放運動 金美哉 李基賢 ◇執行委員

변환 형제이 있습으로 계속 등이 따또 BSE 도(永宗島)에 다

紀永淑 金永 生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1 

조비중에 있을걸 그려치만공작 이로서는 그대판식을 자미스럼 이로서는 그대판식을 자미스러 무슨계획이 있는줄을 내가아는 대 그계획이를리기권에는 마두 그리다가말을 먹었하며 그리다가말을 먹었하며

마인일뿐아니라 허용이 가득첫 면되자이다 그래서 난편을구하다 모족할만치되었는데 그용이 가득첫 일개서생인박군이감하지는이 그용이 무한한 동정을주었다 그래서 내

다나 ★보게하고 엇던 신문이보게한 지? 그교장님들의무리한것이야 된신문한폐지를자유로보지나아니할는 이어 그분의 신세도 가련하지아니라의 책한 이로구속을 할때에 한생들에게 되었다.

羅州蠶室全燒

지금이 그용작이 파리되어 업지

朝鮮玄型의今後

江邊에 寒兒屍 정북칠 공군약목면덕산리 (吳北溪谷郡 공군약목면덕산리 (吳北溪谷郡 이동리사람이 발견하얏니데 소 한정살 서에 서는병인수색에 노력 중이라더라(약목)

金浦酒店≅窃盗

金容熙 韓貝淑 金永淑

戦亂後打撃

リ

수 권라(歐洲殿殿) 이 주로 외에 『조성호텔』에 서는 수입이 어『조성호텔』에 서는 수입이 는 식당(食堂)에 우 아(晉樂) 시설는 비깃축을하야 소극책 생으트러에 지금에이 밀리쉬 구주의재계도 전치회복되는 무준물 보일뿐더러 의근리에 이밀리쉬 사용을 보일뿐더러 의근리에 시작하는 비깃축을하야 소극책 생으트러에 지금에이 밀리쉬 가수의재계도 전치회복되는 무수의재계도 전기회복되는 무수의자계도 전기회복되는 무수의자계로 전기하는 무수의자계로 전기회복되는 무수의자계로 전기 보기되었다면 무수의자계로 전기 보기되었다면 무수의자계로 전기되었다면 무수의자계로 전기되었다면 무수의자계로 전기되었다면 압으로는힘이피게될듯

安東女性의

단례를조지하

四の「上」」撲滅策

지급 연하라 바로발을하지나는 지급 연하라는병에 결리성네 살 고뛰도못하기 싹봇들렛네!! 나는다라하는말로 『하허그런면 봇대를드는배에 희는 설흥등등되되어 되어도 기를 하면서나를 첫눈이로바라 보앗는대 나는그 배려행복에 산 보앗는대 나는그 배려행복에 산 보앗는대 나는그 배려행복에 산 인이바라보는데 조금 봇그리 운생각이 업첫다면 내가나의 함신을 속인다고 할수빗게업 자조금이다가내업으로도급와서

는 문장이 목모가라 쏘다질객에 기가 한순이로 머리를 주었다